

표절 검사 상세 결과

문서표절률	전체문장	동일문장	의심문장	인용/출처	범형/경전
96%	25	23	2	1	0

표절 결과 문서명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txt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가. 의열단의 일원으로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출생과성장[편집 | 원본 편집]

평양숭실학교를 졸업한 뒤 기독교 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다가 서울로 올라와 광성연초공사의기계 감독으로근무하였다. 김익상은 어렸을 때 부터 소원이 비행사가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비행기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앞담배를 빼돌려 판 자금으로 천진과 상하이를 거쳐 비행학교가 있는 광둥으로 갔다. 하지만 당시 광둥의 護法정부는 북부원정대에 치중하느라 비행학교 운영을 일시 중지하고 있었으므로 비행사의 꿈을 이루지 못하였다.

의열단가입[편집 | 원본 편집]

한국 혁명가들이 집결해 있는 북경으로 가서 의열단 단장 김원봉을 만난 김익상은 바로의열단에 가입하였다.

1919년 11월 만주 길림에서 창단된 의열단은 의열 투쟁을 기본 전술로 삼고 항일투쟁에 조국광복과 민족독립을 위해 생명을 바쳐 헌신 할 것을 맹세한 이들이 단원이 되었다.

김익상은 "조선의 독립은 2천만 민족의 10분의 8 이상이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아니된다. 우리는 이때에 선두에 나아가 희생이 됨이 마땅하다"는 약산의 연설에 감명받아 의열단에 가입하였다. 한국 독립운동이 일제와의 전면적 전투를 벌이기에는 부족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히 의열투쟁의 길로 나선의열단의 동지들은 김익상은 담력도 있고 반일사상과 애국정신이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경성 인근에서 활동했기에 누구보다도 경성의 지리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김익상은 의열단에서 기획하고 있던 조선총독부 폭파 실행 임무를 자원하였다.

의거[편집 | 원본 편집]

김익상은 1921년 9월 9일에 김원봉 으로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입수한 폭탄 2개와 권총 2정을 건네받고, 서울에 도착한 뒤 김익상은 아우 김준상의 집을 찾아가 하루를 묵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일본인 전기 수리공 차림으로 남산에 있던 조선총독부 청사로 갔다.

1919년 11월에 본격적으로 '암살·파괴'투쟁을 추진하고 있었다. 김원봉은 3·1운동의 대중화 단계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독립만세 시위를 전개한 민중의 혁명적 진출을 보고 크게 감동하였다. 이로써의열투쟁 단체를 조직하여 '암살·파괴'투쟁을 전개함으로써 국내 동포들의 독립정신을 환기시키고, 나아가 이를 통하여 민중혁명을 촉발함으로써 민족독립과 조국광복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김익상은 9월 12일 오전 10시 20분경 전기 수리를 위해 온 것처럼 행동하며 대담하게 조선총독부 청사로 들어가 먼저 2층에 있는 비서관에 폭탄을 던지고, 이어 회계과 응접실에 폭탄을 던졌다. 비서관에 던진 폭탄은 폭발하지 않았으나 회계과 응접실에 던진 폭탄은 일시에 굉음을 내며 폭발하자 여러 명의 일본 헌병들이 놀라 뛰어올라왔다. 김익상은 이들에게 "2층으로 올라가면 위태하다"는 말을 남기고 유유히 조선총독부 청사를 빠져나왔다.

각주

박태원, 若山과 義烈團 , 58쪽. 박태원은 김익상의 본명을 金鳳男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김익상 아우의 이름은 金俊相은 金仁男이라고도 하씀다. 경기도 경찰부에서 조사하여 작성한 朴景淳 신문 조서에도 김익상은 金秋山, 中村政太郎 등의 이름도 사용했다고 한다. (京畿道 警察部, 피의자 朴景淳 신문자료, 1938.11.30).

京畿道 高陽郡 龍江面 孔德里 286번지, 지금의 마포구 공덕동

법정[편집 | 원본 편집]

김익상은 자신이 의열단원임을 당당히 밝히고 1921년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던진 장본인임을 자백하였다. 그러나 일제 수사관 경찰은 처음에 이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황포탄 정의로운 행위 주역들을 정치범이 아닌 단순 살인미수 사건으로 취급하려 했다. 다나카을 대신해 오성륜의 총탄을 맞고 사망한 여성의 남편 스나이더(W. J. Snyder) 씨는 나라를 잃은 한국의 젊은 혁명가들이 조국의 해방을 위해 일본의 군국주의자를 총살하려다 사고가 발생 하게된 연유를 듣고는 일본수사관 감옥으로 면회와서 조국의 해방을 위해 투쟁한 의사들을 존경하며 자신의 힘이 자란다면 그대들의 해방운동을 도와주고 싶다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 김익상은 1922년 9월 25일 나카사키 지방재판소에서 마츠타 재판장에 의해 무기징역을 받았고, 이에 불복한 검사측의 공소로 11월 6일 오후 1시 열린 나카사키공소원의 공소공판에서 모리 재판장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형이 선고되자 김익상은 호통을 치며 의자를 들어 재판장을 때리려 하였다. 아마도 재판장에 대해 사적인 감정이 발동해서가 아니라 의거의 진정한 의의를 애써 외면하는 제국주의 자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김익상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다시 20년형으로 감형되었다가 1936년 8월 2일 가고시마 형무소에서 출옥하였다. 일본 형사에게 연행된 뒤 소식이 끊겨 생사를 알 수 없었다. 그의 최후에 대한 이강훈 독립지사의 회고에 의하면 용산경찰서 연행 중 한강에 투신해 생을 마감하였다고 한다.